



## 예레미야 34장 17절의 𐤀𐤃𐤃𐤃(드로르)의 의미<sup>1</sup>

김유기(서울여대)

### 1. 들어가는 말

예레미야 34장 8-22절은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던 시기의 사건을 다룬다.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22절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 “내가 그들을 이 도시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곳에 맞서 싸워 이곳을 차지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렘 34:22) 여기서 “그들”은 21절에 나오는 “너희를 떠나 물러갔던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가리킨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이집트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것이다(렘 37:5, 11). 이 단락은 바로 이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제시된다.

1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2022-0109).

이 단락에 따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성전에서(렘 34:15) 계약을 맺고 종들을 풀어 주면서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서약했다(8-10절).<sup>2</sup>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마음을 바꿔, 풀어 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부렸다(11절).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동안에 종들을 풀어 주었다가 바빌로니아 군대가 물러나자 풀어 주었던 종들을 다시 데려와 일을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sup>3</sup>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야훼의 말씀을 전한다(12절).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했다가 다시 잘못된 길로 돌아선 것에 관해 비난한 다음(13-16절), 백성을 향해 재앙을 선언한다(17절). 이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지도자들이 받을 벌을 선언하고(18-20절), 바빌로니아 군대가 돌아와 예루살렘과 유다를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한다(21-22절). 그 가운데 17절은 백성이 저지른 잘못과 그들이 받을 벌을 인과관계로 이어 준다.

(1) 예레미야 34장 17절, 「개역개정」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2 시드기야 왕이 위기 상황에서 종들을 풀어 준 이유에 관한 논의로, 정중호,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과 왕권 강화”, 「구약논단」, 18권 2호 (2012년 6월), 178-201을 보라. 정중호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을 신앙적 이유, 군사적 이유, 경제적 이유로 분류하여 논의한 후 정치적 이유를 중요한 이유로 제시한다.

3 이러한 역사적 재구성의 예로, Nahum Sarna, “Zedekiah’s Emancipation of Slaves and the Sabbatical Year”, Harry A. Hoffner, Jr. (ed.), *Orient and Occident: Essays Presented to Cyrus H. Gordon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AOAT 22; Kevelaer: Butzon & Bercker/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3), 144-145; William L. Holladay, *Jeremia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26-52*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89), 239를 보라.

「개역개정」에 따르면 유다 사람들이 “자유를 선포한 것”을 되돌린 것에 대해서 야훼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신다. 여기서 ‘자유를 선포하다’와 ‘자유를 주다’로 번역된 표현은 ‘선언하다’라는 뜻의 동사 קרא(카라)의 활용형(부정사와 분사)에 דרור(드로르)가 결합되어 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자유를 선포한 것”은 유다 사람들이 종들을 풀어 준 행동을 가리키고 “자유를 주리라”는 야훼가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세 가지 재앙을 풀어 주시는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같은 표현이 두 곳에 나오면서 일종의 말놀이를 통해 유다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연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나오는 דרור(드로르)를 번역본들이 어떻게 옮기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דרור(드로르)와 관련된 아카드어 ‘안두라루(*andurāru*)’의 기본 의미가 ‘해방’ 보다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감’에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이 구절에서 דרור(드로르)가 나오는 구문의 문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맥락을 들여다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확인된 דרור(드로르)의 뜻을 반영하여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번역을 제안할 것이다.

## 2. דרור(드로르)의 번역과 문맥

### 1) 번역

(2) 예레미야 34장 17절의 דרור(드로르) 관련 구절

אַתֶּם לֹא־שִׁמַּעְתֶּם אֵלַי לְקֹרֵא דְרוֹר אִישׁ לְאַחִיו וְאִישׁ לְרֵעֵהוּ  
הֲנִי קָרָא לָכֶם דְרוֹר נְאֻם־יְהוָה אֶל־הַחֲרָב אֶל־הַדְּבַר וְאֶל־הָרֶעִב

www.kci.go.kr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개역개정」)

칠십인역은 여기에 두 차례 나오는 לְחַדְשֵׁי (해방)의 뜻을 지니는 ἄφεσις(아페시스)로 옮기고 있으며,<sup>4</sup> 불가타는 ‘자유’를 뜻하는 ‘libertas’로 옮긴다. 그런데 칠십인역은 레위기 25장과 27장 등에 나오는, ‘희년’을 가리키는 לַיָּבֵל(요벨)도 거의 한결같이 ἄφεσις로 옮기고 있다(레 25:10, 11, 12, 13, 28, 30, 31, 33, 40, 41, 50, 52, 54; 27:17, 18, 21, 23, 24; 민 36:4). 뿐만 아니라 신명기 15장 등에서 7년마다 빚을 없애 주는 일을 나타내는 שְׁמִטָּה(슈밋타/빚의 면제)와 그 동사형인 שָׁמַט(사마트/풀어 주다) 역시 ἄφεσις로 옮기고 있다(신 15:1, 2, 3, 9; 31:10). לְחַדְשֵׁי와 לַיָּבֵל과 שְׁמִטָּה 사이에 공통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칠십인역이 원어의 구분을 번역어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번역자들이 이 세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이 셋을 구분할 만한 적절한 번역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현대 서양어 번역본들은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두 번 나오는 לְחַדְשֵׁי를 ‘자유(liberty, freedom, liberté)’(ESV, BFC, NJB, NEG)나 ‘해방(release, Freilassung, affranchissement)’(NRS, NAS, EIN, LB, ZB, TOB)으로 옮김으로써 원문의 형태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 번역본들 대부분은 이 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 לְחַדְשֵׁI를 받게 되는 대상을 ‘너희’로 본다. 예를 들어, ESV는 “I proclaim to you liberty to the sword, to pestilence, and to famine”으로 옮긴다. 여기서 자유나 해방의 대상은 ‘너희’이고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은 해방의 방향이다. 이와

4 칠십인역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다섯 곳(레 25:10; 사 61:1; 렘 34:8, 15; 겔 46:17)에 나오는 לְחַדְשֵׁI를 모두 ‘아페시스’로 옮기고 있다.

달리 NJB는 “I ... shall leave sword, famine and plague free to deal with you”로, BFC는 “je proclame que je vais libérer contre vous la guerre, la peste et la famine”으로 옮기면서 해방의 대상을 ‘너희’가 아니라 세 가지 재앙으로 본다.

「개역개정」은 대부분의 서양어 번역본과 달리 NJB와 BFC처럼 두 번째 **וַיִּרְאֵהוּ**가 나오는 구절을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로 옮긴다. **וַיִּרְאֵהוּ**를 받는 대상을 세 가지 재앙으로 보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유’를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재앙에게 자유를 준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구약 성서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의미도 분명하지 않다.

「개역개정」과 달리 「공동개정」은 “나는 너희를 풀어놓아 칼과 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하리라”로 옮긴다. 「새번역」도 이와 비슷하게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로 옮긴다. 원문에는 없는 ‘죽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이 두 번역은 **וַיִּרְאֵהוּ**의 대상을 세 가지 재앙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로 보고 있다.<sup>5</sup> 한편, 「공동개정」과 「새번역」이 원문을 풀어서 옮기기는 했지만 유다 사람들을 풀어놓는다거나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한다는 표현은 그들이 재앙으로 죽을 것이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언뜻 보기에 자유를 얻는 것과 재앙을 만나서 죽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

5 가톨릭 「성경」도 「새번역」이나 「공동개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니, 너희를 칼과 흑사병과 굶주림에 넘겨”로 옮긴다.

## 2) נִרְרָה(드르르)의 대상

נִרְרָה는 예레미야 34장 8-22절에 네 번 언급된다. 8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נִרְרָה를 선언한 사건을 서술자가 설명할 때 나오고 15절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야훼의 말씀에 나온다. 17절에서는 נִרְרָה를 선언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야훼가 책망하시는 장면에서 한 번 나오고 야훼가 직접 נִרְרָה를 선언하겠다는 말씀에서 또 한 번 나온다. 이 네 번 모두 נִרְרָה는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נִרְרָה(카라)와 함께 나온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 관해 할러데이(W. L. Holladay)는 유다 사람들이 저지른 죄와 어울리는 방식으로 벌이 주어진다고 본다. 종의 주인들이 ‘자유를 선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함으로써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의 재앙을 겪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다.<sup>6</sup> 밀러(P. D. Miller)도, 같은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범죄와 심판의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이 구절을 분석한다. 종들에게 실제로는 자유가 아닌 자유를 선언한 이 사람들에게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야훼가 해방을 선언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해방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sup>7</sup> 한편 키오운(G. L. Keown)은 빛을 저서 종이 된 사람들을 풀어 주지 않은 사람들을, 야훼가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풀어 주어 마음껏 해치도록 하시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sup>8</sup>

예레미야 34장 17절의 두 번째 נִרְרָה가 주어지는 대상을 할러데이나 밀러는 유다 사람들로 보고 있으며 키오운은 재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박동현은 할러데이나 밀러처럼 נִרְרָה가 주어지는 대상을 유다 사람들로 보면서, “그

6 William L. Holladay, *위글*, 242.

7 Patrick D. Miller, Jr., “Sin and Judgment in Jeremiah 34:17-19”,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3 (1984), 612.

8 Gerald L. Keown/Pamela J. Scalise/Thomas G. Smothers, *Jeremiah 26-52* (WBC 27; Dallas: Word, 1995), 184.

언약을 뒤집은 사람들에게 야웨께서 자유를 선언하신다고 할 때, 이는 야웨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이 재난을 겪도록 내버려두신다는 뜻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sup>9</sup> 이와 같이 이 **יְרֵמְיָהּ**는 같은 장의 다른 곳에 나오는 **יְרֵמְיָהּ**처럼 그 대상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래의 4.1)에서 구문을 분석하며 좀 더 논의할 것이다.

### 3) 구약성서의 **יְרֵמְיָהּ**(드로르)

구약성서에서 **יְרֵמְיָהּ**는 예레미야 34장 외에 세 번 더 나온다.<sup>10</sup> 그 가운데 율법서에서는 레위기 25장 10절에만 나온다. 이곳에서도 **קָרָא**(카라)와 함께 사용되는데,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희년에 종의 해방을 선언하라는 규정에 등장한다. 로익터(M. Leuchter)는 **יְרֵמְיָהּ**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왕정 제도와 관련되는데 레위기 25장 10절의 **יְרֵמְיָהּ**는 왕의 통치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왕의 통치 행위로 **יְרֵמְיָהּ**가 선언되는 예레미야 34장을 바탕으로 H 저자가 레위기 25장 10절을 썼다는 것이다.<sup>11</sup> 먼저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34장 14절에서 신명기 15장 2절을 인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왕의 통치 행위와 관련되어 있던 **יְרֵמְיָהּ**를 신명기 율법의 범주에 들어가게 했고, H 저자는 이 단어를 희년법과 결합하여 설명함으로써 사독 계열 제사장의 율법의 범주에 들여놓았다는 것이다.<sup>12</sup>

예언서에서 이 단어는 두 차례 나온다. 이사야 61장 1절은 미래에 선언될 **יְרֵמְיָהּ**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קָרָא** 동사가 사용된다. 「개역개정」은

9 박동현, 「예레미야 (I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100주년기념주석 23-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57.  
 10 **יְרֵמְיָהּ**는 ‘물약’ (출 30:23)이나 새의 한 종류(시 84:43; 잠 26:2)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동음이의어들은 이 글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11 Mark Leuchter, “The Manumission Laws in Leviticus and Deuteronomy: The Jeremiah Connect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7 (2008), 648-649.  
 12 윗글, 650.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 선포하며”로, 「새번역」은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로 「공동개정」은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로 옮긴다. 에스겔 46장 17절은 ‘רִירוֹת הַיָּם’ 곧 ‘רִירוֹת הַיָּם שָׁנָה(슈낫 핫드로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해는 미래의 군주가 신하에게 빌려 주었던 땅이 다시 군주에게로 되돌아오는 해를 가리킨다. 비록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두 구절이 미래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에는 레위기 25장의 희년과 연결되어 있다. 에스겔 46장 17절의 רִירוֹת הַיָּם שָׁנָה를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희년”으로 옮기고 있는데 「공동개정」은 “되돌리는 해”로 옮기고 있다. 「공동개정」은 레위기 25장 등에서는 “희년”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면서도 여기에서는 “되돌리는 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레미야 34장 8-22절은 빛을 없애 주고 종을 풀어 주라는 명령이 담긴 신명기 15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레미야 34장 1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7년째 되는 해에 종을 풀어 주라는 명령은 신명기 15장 12절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4장 8-22절의 여러 곳에서 신명기 15장의 흔적이 드러난다.<sup>13</sup>

종의 해방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5장에서는 שִׁמְטָה(슈밋타)가 사용된다. שִׁמְטָה는 ‘풀어 주다’, ‘떨어뜨리다’,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שָׁמַט(샤마트)에서 파생된 명사이다.<sup>14</sup> 1절에서는 שִׁמְטָה가 동사 אָשָׁה(아사/하다)와 함께 사용되며 이어지는 2절에서는 אָקָה와 함께 사용된다. 또한 신명기 15장 9절과 31장 10절에서는 ‘שִׁמְטָה의 해’ 곧 ‘שָׁנַת שִׁמְטָה(슈낫 핫슈밋타)’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예레미야 34장 8-22절은 종을 풀어 준 사건에 관해 말하면서 신명

13 예레미야 34장이 출애굽기 21장 1-11절이 아니라 신명기 15장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Nahum Sarna, *읽기*, 145-147을 보라.

14 HALOT, 1557-1558.

기 15장에 나오는 **הַשָּׁמִימִים**를 사용하지 않는다.<sup>15</sup> 그 대신 레위기 25장 10절에서 50년마다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를 가리킬 때 사용된 **הַשָּׁמִימִים**를 사용하고 있다. 버르그즈마는 예레미야 34장이 레위기 25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세 가지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הַשָּׁמִימִים**를 사용한 것을 꼽으면서 예레미야 34장 외에 이 단어는 희년을 가리킬 때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sup>16</sup>

학자들은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הַשָּׁמִימִים**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희년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르나(N. Sarna)는 시드기야가 종을 풀어 준 해가 안식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sup>17</sup> 그러나 밀그롬(J. Milgrom)은 시드기야가 종을 해방한 일이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예레미야서 본문을 바탕으로 이 **הַשָּׁמִימִים**가 일어난 해가 희년이었다고 논증한다.<sup>18</sup> 마찬가지로 룬드봄(J. R. Lundbom)은 시드기야의 종 해방이 희년의 해방이었고 그렇게 한 목적은 안식년에 종을 풀어 주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일을 바로잡는 것이었다고 한다.<sup>19</sup>

버르그즈마의 설명처럼 예레미야 34장의 저자는 이 사건을 “신명기 15장의 해방 명령과 레위기 25장의 희년 규정의 언어와 개념을 창의적으로 재사

15 Martin Kessler, “The Law of Manumission in Jer 34”, *Biblische Zeitschrift* 15 (1971), 106은 예레미야 34장이 **הַשָּׁמִימִים**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하지만 신명기 15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הַשָּׁמִימִים**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הַשָּׁמִימִים**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16 John S. Bergsma, *The Jubilee from Leviticus to Qumran: A History of Interpretation* (VTSup 115; Leiden/Boston: Brill, 2007), 164-169. 두 번째 증거는 시드기야 시대에 이루어진 종의 해방이 레위기 25장처럼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 증거는 **הַשָּׁמִימִים** (**הַשָּׁמִימִים** (리크로 드로르)와 **הַשָּׁמִימִים** (슈브)를 이용한 말놀이가 두 곳 모두에 나온다는 점이다. 이 세 번째 증거에 대해서는 4.2)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17 Nahum Sarna, *유태교*, 149.

18 Jacob Milgrom, *Leviticus 23-2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3B; New York: Doubleday, 2001), 2257-2264.

19 Jack R. Lundbom, *Jeremiah 21-3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21B; New York: Doubleday, 2004), 561.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그런데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시드기야의 종 해방은 신명기나 레위기의 규정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은 빛을 면제해 주려는 명령이나 회년의 종 해방 명령에 따라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해방이 아니라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왕의 특별한 명령으로 이루어진 정치적인 사건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종을 왕의 명령으로 풀어 준다는 점에서 시드기야의 명령은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의 안두라루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안두라루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조치가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text{דרור}$ 의 배경과 의미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려 한다.

### 3. 메소포타미아의 안두라루(*andurāru*)

#### 1) $\text{דרור}$ (드로르)와 안두라루(*andurāru*)

히브리어  $\text{דרור}$ (드로르)는 아카드어 안두라루(*andurāru*)와 연관되는데,<sup>21</sup> 히브리어 외의 다른 서셈어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아카드어에서 빌려 온 것으로 보인다.<sup>22</sup>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기원전 1792-1750년경)의 시대에도

20 John S. Bergsma, *윳글*, 169-170.

21 *andurārum* 또는 *andurāru*에서 어근은 *andurār-*이며 *-um* 또는 *-u*는 주격 어미이다. 초기 고대 바빌로니아어에서는 주격 어미의 형태가 *-um*이었지만 후기 고대 바빌로니아어부터는 *-m*이 탈락하여 *andurāru*의 형태로 나타난다.

22 이종근, “히브리 성서의 회년과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룸 제도”, 『구약논단』 1권 1호(1995년 9월), 88은 “회년의 노예 및 종들의 해방(*drwr*)”과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안두라루가 비슷한 제도라고 언급하면서도 둘 사이의 언어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카드어의 차용어라는 데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HALOT, 230-231; Hayim ben Yosef Tawil, *An Akkadian Lexical Companion for Biblical Hebrew: Etymological-Semantic and Idiomatic Equivalents with Supplement on Biblical Aramaic* (Jersey City, NJ: KTAV, 2009), 81; Niels Peter Lemche, “*Andurārum* and *Mišarum*: Comments on the Problem of Social Edicts and Their Applications in the Ancient Near East”,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38 (1979), 22.

흔히 나오는 이 단어는 신아시리아 시대(기원전 934-610년경)까지 발견된다. 신아시리아 시대에 이르면 왕들의 명문에서는 ‘안두라루’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지만 법률 문서나 편지와 같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문서에서는 대부분 ‘안(an)-’이 떨어져 나간 ‘두라루(*durāru*)’의 형태로 나온다.<sup>23</sup>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안(an)-’이 결합된 형태는 없고 ‘דרור(드로르)’의 형태로만 나온다. 따라서 דרור은 신아시리아 시대나 그 이후에 차용된 단어로 볼 수 있다.<sup>24</sup> 실제로 구약성서에서 이 단어는 기원전 6세기 또는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서만 발견된다(레 25:10; 사 61:1; 렘 34:8, 15, 17(2회); 겔 46:17).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이 이따금 칙령을 내려, 빛을 지고 종이 된 사람들을 풀어서 주게 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들은 왕위에 오른 후 한두 해 안에 ‘미샤루(*mīšaru*)’라 불리는 칙령을 내렸다. 통치 초기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비정기적으로 이런 칙령을 내림으로써 빛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sup>25</sup>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고대 바빌로니아의 암미차두카 왕(기원전 1647-1626년경)이 내린 칙령이다.<sup>26</sup> 학자들은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דרור을 이 미샤루 칙령과 관련시킨다.<sup>27</sup>

‘미샤루’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이후에는 이처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칙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는다.<sup>28</sup> 그러나 이러한

23 Pierre Villard, “L’(an)durāru à l’époque néo-Assyrienne”, *Revue d’Assyriologie* 101 (2007), 107.

24 루이(J. Lewy)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증거를 바탕으로 דרור이 왕정 시대 이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여기지만 램키는 기원전 7세기나 6세기에 차용되었다고 본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형태만으로 보아도 램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신아시리아 시대의 아카드어 *durāru*가 히브리어로 차용되면서 일반적인 모음 변화를 거치고 격어미가 탈락하면 *dērōr*가 되기 때문이다. Julius Lewy, “The Biblical Institution of *derōr* in the Light of Akkadian Documents”, *Eretz-Israel* 5 (1958), 29; Niels Peter Lemche, *윇글*, 22.

25 Dominique Charpin, “Les édits de ‘restauration’ des rois Babyloniens et leur application”, Claude Nicolet (ed.), *Du pouvoir dans l’Antiquité: mots et réalités* (Geneva: Librairie Droz, 1990), 21-24.

26 “The Edicts of Samsu-Iluna and His Successors”, trans. William W. Hallo (*COS* 2.134:362-364).

27 Jack R. Lundbom, *윇글*, 559.

28 Pierre Villard, *윇글*, 123. 아카드어 ‘미샤루’는 히브리어 מִשְׁאֲרֵי (메샤림/곧은 길, 올곧음) 또는

칙령의 전통은 ‘안두라루’라는 이름으로 신아시리아 시대까지 이어진다. 신아시리아 시대 가운데 기원전 800년경부터 610년경까지 안두라루가 시행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안두라루는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시행되었다.<sup>29</sup> 이 시기의 안두라루 역시 빚을 면제해 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인 사이의 계약서 일부에서 “두라루 이후에”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지불 의무의 유효성을 입증한 것을 보면 ‘두라루’ 선언으로 그 선언 이전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채무가 면제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0</sup>

## 2) ‘안두라루’의 의미: 되돌아감

아카드어 ‘안두라루’를 표기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수메르어 문자 amar-gi<sub>4</sub>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감”을 뜻한다.<sup>31</sup>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문서를 보면 안두라루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시행되었다. 자유민이 빚을 저서 다른 사람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그 빚을 모두 없애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이 단어는 빚을 면제해 주거나 종을 풀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겨졌다.<sup>32</sup> 실제로 이 단어가 그런 행위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면제’나 ‘해방’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샤르팡(D. Charpin)은 이 단어

גיָרָא(미쇼르/팽지, 정의)와 연관되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 왕이 내린 칙령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램키의 주장대로,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미샤루’ 칙령을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Niels Peter Lemche, “The Manumission of Slaves: The Fallow Year, the Sabbatical Year, the Jubel Year”, *Vetus Testamentum* 26 (1976), 41.

29 Pierre Villard, *윗글*, 118-119.

30 Julius Lewy, *윗글*, 30\*31\*; Pierre Villard, *윗글*, 121.

31 Dominique Charpin, “Les décrets royaux à l’époque paléo-Babylonienne, à propos d’un ouvrage récent”, *Archiv für Orientforschung* 34 (1987), 38.

32 CAD A II, 115; Julius Lewy, *윗글*, 21\*23\*; Niels Peter Lemche, *윗글* (1979), 15.

의 의미를 ‘해방(libération)’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보다는 수메르어의 문자적 의미인 ‘어머니에게로 돌아감’과 비슷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sup>33</sup> 안두라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소유물에도 적용되었다. 안두라루의 대상이 집인 경우 이 용어는 그 집이 자유를 얻는 것보다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도 안두라루는 ‘이전 상태로 돌아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같은 맥락에서 빌라르(P. Villard) 역시 안두라루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재물이나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허락해 주는 조치”로 정의한다.<sup>35</sup>

고대 바빌로니아 암미차두카 왕의 칙령의 한 조항(§ 20)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 빚 때문에 노동을 하거나 담보로 잡혀 있을 때 이 칙령으로 그의 안두라루가 시행된다고 선언한다.<sup>36</sup> 보테로(J. Bottéro)는 암미차두카 왕의 칙령을 다루면서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 이루어진 이러한 조치에는 왕이 자비를 베푸는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를 쌓아 올리는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생산력이 떨어지고 빚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보는 것이다.<sup>37</sup> 이런 측면에서 안두라루는 단순히 묶여 있는 사람을 풀어 주는 것보다는 사람이나 사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3 Dominique Charpin, *윳글* (1987), 36-41; *윳글* (1990), 19.

34 Dominique Charpin, *윳글*(1990), 20.

35 Pierre Villard, *윳글*, 107.

36 “The Edicts of Samsu-Iluna and His Successors”, *COS* 2,134:364, § 20.

37 J. Bottéro, “Désordre économique et annulation des dettes en Mésopotamie à l’époque paléo-babylonienne”,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 (1961), 158.

샤르팽은 암미차두카 왕의 칙령에서 위에 언급된 조항(§ 20)에 이어지는 조항(§ 21)을 예로 들면서 안두라루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그 지역(§ 20에 언급된 것과 같은 지역)에서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팔려 갔거나 빚 때문에 일하거나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칙령이 내려지더라도 그의 안두라루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sup>38</sup> 만약 안두라루가 ‘해방’을 뜻한다면 이 조항은, 칙령이 내려지더라도 원래 종으로 태어나 다른 사람에게 팔려 간 종은 새로운 주인에게서 풀려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종이 풀려나든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던 아무 상관도 없다. 그렇다면 원래 주인에게 이 조항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안두라루가 ‘되돌아감’을 의미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경우에 안두라루가 시행된다는 의미는 그 종이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암미차두카 왕의 칙령 § 21은, 안두라루가 선언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려 갔던 종은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sup>39</sup> 안두라루는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면제해 줌으로써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사람이 새로운 주인을 떠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칙령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에게는 안두라루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조항이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 §§ 280-281은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종을 사서 돌아왔는데 그 종의 원주인이 그 종을 알아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여

38 “The Edicts of Samsu-Iluna and His Successors”, COS 2,134:364, § 21.

39 Dominique Charpin, *윗글* (1987), 36-37; *윗글* (1990), 19.

기에 따르면 그 종이 본토박이이면 값을 치르지 않고 그의 안두라루가 시행 될 것이지만 그 종이 외국인이라면 딴 나라에서 그 종을 사 온 사람에게 원주인이 돈을 지불하고 되사야 한다고 한다. 안두라루가 만약 ‘해방’을 뜻한다면 외국에서 사 온 종이 그냥 풀려난다는 의미이지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감’을 뜻한다면 원주인에게 되돌아가간다는 의미가 된다. 외국에서 사 온 종이 원래 주인을 만났는데 그 종이 본토박이라면 그냥 풀려난다는 규정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샤르팽은 종이 본토박이인 경우와 외국인인 경우 모두 원주인이 자기 종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돌려받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값을 치르고 돌려받는 것이라고 해석한다.<sup>40</sup>

안두라루에 ‘해방’이나 ‘자유’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미는 파생된 의미로서 주로 빗을 지고 종이 되었던 사람의 경우에 적절하다. 더 폭넓게 사용되는 의미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감’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두라루는 사람이나 재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사회의 누적된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조치였고 이런 정치적 의미가 이 단어의 기본 의미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안두라루(*andurāru*)와 유다에서 선포된 קִרְיָהּ(드로르)

이처럼 안두라루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왕의 칙령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런 칙령은 비정기적으로 선언되었으며 주로 빗을 없애 줌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조치와 관련된다.<sup>41</sup> 이 점에서 예레미야

40 Dominique Charpin, *윗글* (1987), 36-37.

41 윤성덕, "Slave Remission in Jeremiah 34:8-22", 『서양고대사연구』 34호 (2013년 4월), 85-86은 메소포타미아의 안두라루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종을 풀어 주는 것보다는 빗을 없애 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서의 회년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는 회년법이나 시드기야의 종 해방과 안두라루 사이의 역사적 연관성이나 제도적 관련성보다는 ‘קִרְיָהּ’와 ‘안두라루’라는 단어

34장의 **רָחַם**는 메소포타미아의 용례와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도 시드기야 왕이 **רָחַם**를 선언하여 종들을 풀어 주었으며 이 조치는 비록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오른 상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sup>42</sup>

**רָחַם**는 메소포타미아의 안두라루, 그 가운데에서도 시대적으로 가까운 신아시리아 시대의 ‘두라루’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해 램키(N. P. Lemche)는 유다가 한 세기 넘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속국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시드기야는 단순히 신아시리아의 칙령 관례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한다.<sup>43</sup> 빌라르(P. Villard) 역시 “안두라루는 근동 지방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실재”였다고 하면서 시드기야가 선언했다고 하는 종의 해방과 안두라루의 연관성을 강하게 지지한다.<sup>44</sup> 물론 단어를 빌려 왔다고 해서 그 단어가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닌 언어 공동체에서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단어가 아카드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하면서 성서 저자가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를 빌려 와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사이에 공유된 의미에 관심을 둔다.

42 시드기야가 종을 풀어 준 데에는 위기 상황에서 병력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목적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앙바르(M. Anbar)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엘람 군대의 포위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군사가 부족하여 전국에 동원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상인은 물론 해방된 노예들도 있었다고 기록한 마리 문서를 인용한다. Moshé Anbar, “La libération des esclaves en temps de guerre: Jer 34 et ARM XXVI,363”,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1 (1999), 253-255.

43 Niels Peter Lemche, *읽글* (1976), 57.

44 Pierre Villard, *읽글*, 123.

#### 4. 예레미야 34장 17절의 דָּרוֹר(드로르) 분석

##### 1) 구문 분석

(3) 예레미야 34장 17절의 דָּרוֹר 구문

(ㄱ) לְקָרָא דָּרוֹר אִישׁ לְאָחִיו וְאִישׁ לְרֵעֵהוּ

(ㄴ) הֲנִי קָרָא לְכֶם דָּרוֹר נְאֻם־יְהוָה אֶל־הַחֶרֶב אֶל־הַדָּבָר וְאֶל־הָרֶעִב

קָרָא(카라)의 부정사로 시작하는 (3ㄱ) 구문에서는 דָּרוֹר(카라 드로르) 다음에 이를 꾸며 주는 표현, “사람마다 자기 형제에게,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가 나온다. 여기에서 조사 ‘-에게’는 전치사 ל(르)를 옮긴 것이다. 반면 ‘헌네’와 קָרָא의 분사로 시작하는 (3ㄴ) 구문에서는 קָרָא와 דָּרוֹר 사이에 לְכֶם(라켄/너희에게)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 역시 ל이다. 이어서 נְאֻם־יְהוָה(느움 야훼/야훼의 말씀)라는 삽입구가 나오고 그 뒤에 재앙을 가리키는 세 단어가 세 번 반복되는 전치사 אֶל(엘)의 지배를 받는다.

이 두 구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치사 ל가 지배하는 명사구(대명사 포함)는 דָּרוֹר가 선언되는 대상을 가리킨다. (3ㄱ)에서는 형제와 이웃이고 (3ㄴ)에서는 야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דָּרוֹר를 선언하는 주체는 (3ㄱ)에서는 유다 사람들이고 (3ㄴ)에서는 야훼다. 그렇다면 (3ㄴ)에 나오는 전치사구 וְאֶל ... אֶל ... אֶל(엘 ... 엘 ... 위엘 ...)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이라는 세 가지 재앙이 잇달아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서의 특징이다(렘 14:12; 21:7, 9; 24:10; 27:8, 13; 29:17, 18; 32:24, 36; 34:17; 38:2; 42:17; 42:22; 44:13).<sup>45</sup>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에 15회 나오는데 그 가운데 11회는 전치

45 에스겔서에도 6장 11절과 12장 16절에 나온다. 재앙의 순서는 대부분 ‘칼-굶주림-전염병’으로 나오

사 3(브)와 함께, 2회(24:10; 29:17)는 목적격 표지 אֶת(엇)과 함께, 1회는 전치사 מִן(민)과 함께(21:7), 1회는 전치사 מִפְּנֵי(밋프네)와 함께(32:24) 나온다. 전치사 לְ(라)와 함께 나오는 곳은 34장 17절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재앙은 야훼가 유다를 비롯한 민족들을 멸망하시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로 나타난다.

여기서 야훼가 선언하시는 הָרַחֵם의 대상은 “너희”로 나와 있다. “너희”와 세 가지 재앙이 함께 הָרַחֵם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הָרַחֵם 앞에 “너희에게”가 놓여 있고 재앙 관련 전치사구는 הָרַחֵם과 “야훼의 말씀” 뒤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앙 관련 전치사구는 אֶת가 아니라 הָרַחֵם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에서 계약을 맺고 종들에게 הָרַחֵם을 선언하였다가 번복하였기 때문에 야훼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הָרַחֵם을 선언하겠다고 하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들에게 הָרַחֵם을 선언했다가 취소했다면 야훼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הָרַחֵם을 선언했다가 취소한다고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야훼는 오히려 הָרַחֵם을 선언하겠다고 하신다. הָרַחֵם가 ‘풀어 주는 행위’를 뜻한다면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를 허락해 주는 것을 가리킬 텐데 여기에서는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이라는 방향 또는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

הָרַחֵם을 ‘되돌아감’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들에게 ‘되돌아감’을 선언했다가 다시 돌아선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야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되돌아감’을 선언하시는 것이다. 야훼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הָרַחֵם을 선언했을 때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듯이, 그들

---

는데 예레미야 21장 7절에서는 ‘전염병-칼-굶주림’으로, 34장 17절에서는 ‘칼-전염병-굶주림’으로 나온다.

이 그 **רִצְוֹן**를 취소했을 때 다시 이런 재앙으로 되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다.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황과 운명을 가리킨다. 포위 공격 아래에서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의 위협을 받던 사람들은 자기네 가운데 살고 있던 빛을 지고 종이 된 사람들에게 **רִצְוֹן**를 선언하여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게 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포위 공격의 위협에서 벗어나자 이 조치를 취소함으로써 그 대가로 다시 포위 공격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רִצְוֹן**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하면 자유롭게 풀어 주는 것으로 해석할 때 보다 이 구절의 뜻이 더 잘 통한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은 예레미야서에서 야훼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언급되면서 마치 유다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그려진다. 유다 백성들이 선언한 **רִצְוֹן**는 이런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רִצְוֹן**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훼가 **רִצְוֹן**를 선언하셔서 그들이 종들을 해방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 2) שׁוֹב(슈브)와 רִצְוֹן(드로르)

레위기 25장 10절에서 **רִצְוֹן**가 사용된 문맥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רִצְוֹן**를 선언하는 해를 **שׁוֹב**(요벨/회년)이라 부른다.

### (4)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오십 년이 되는 해를 따로 떼어 놓아 그 땅에서 모든 주민에게 **רִצְוֹן**를 선언하여라. 그 해는 너희에게 **שׁוֹב**이 될 것이다. 너희는 사람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사람마다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 구절에서는 50년째 해를 따로 떼어 **רִצְוֹן**를 선언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이 해가 יובל(요벨/회년)이라고 하면서 그때 해야 할 일을 설명한다. 그것은 사람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וּשְׁבַתָּם/워샵탐) 사람마다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וּשְׁבַתָּ/타슈부) 것이다. ‘돌아가다’라는 뜻을 지닌 שׁוּב(슈브) 동사가 두 번 사용되었고 돌아가야 할 목적지는 전치사 לְ(레)의 지배를 받는다. 예레미야 34장 17절의 재앙 목록에서 각 재앙 앞에 붙은 것과 같은 전치사이다. 레위기 25장 10절은 הָרִירָה를,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일보다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과, 함께 살고 있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일과 이어 준다.

예레미야 34장 8-22절에서 ‘슈브’는 11절과 16절에 두 차례, 15절과 22절에 한 차례 나온다. 한편 הָרִירָה는 8절과 15절에 한 차례, 17절에 두 차례 나온다. 두 단어가 이 단락에서 나오는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의 (5)와 같다.

(5) 예레미야 34장 8-22절의 הָרִירָה와 שׁוּב

(ㄱ) הָרִירָה (8) - שׁוּב (11, 칼) - שׁוּב (11, 히필)

(ㄴ) שׁוּב (15, 칼) - הָרִירָה (15) - שׁוּב (16, 칼) - שׁוּב (16, 히필)

(ㄷ) הָרִירָה (17) - הָרִירָה (17) - שׁוּב (22, 히필)

(5ㄱ)은 서술자가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8-11절에, (5ㄴ)은 이 일에 관해 야훼가 비난하시는 12-16절에, (5ㄷ)은 야훼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17-22절에 나온다. (5ㄱ)의 הָרִירָה는 종들을 풀어 준 사건을 다루고 뒤따르는 두 שׁוּב는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은 사건을 서술한다. (5ㄴ)의 첫 שׁוּב와 הָרִירָה는 종들을 풀어 준 사건을, 뒤따르는 두 שׁוּב는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은 사건을 비난하는 문맥에서 나온다. (5ㄷ)에서 첫 הָרִירָה는 다시 종으로 삼은 사건에 관한 서술에, 둘째 הָרִירָה는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을 경험할 것이라는 선언에 나온다. 마지막 שׁוּב는 바빌로니아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는 심판의 선언에 나온다. 17절에서 두 번째 הָרִירָה로

표현된 재앙이 22절에서 **כָּשׁוּב**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וָרָרָה**가 **כָּשׁוּב**로 표현되기도 하고 **וָרָרָה**를 되돌린 일이 **כָּשׁוּב**로 표현되기도 하고 **וָרָרָה**로 표현된 심판이 **כָּשׁוּב**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는 **וָרָרָה**와 **כָּשׁוּב**의 의미론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두 단어 모두 방향을 바꾸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놀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버르그즈마는 예레미야 34장 8-22절에서 ‘자유 선언’과 ‘**כָּשׁוּב**’라는 희년 사상의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말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46</sup> 그러나 ‘자유 선언’을 ‘되돌아감의 선언’으로 이해하면 본문의 문학적 형태가 더 잘 드러난다.

예레미야 34장에서 **כָּשׁוּב**가 여러 차례 나오는 문맥에 **וָרָרָה**가 나오듯이 신 아시리아 시대에 쓰인 문헌에서도 안두라루가 ‘돌아가다’라는 뜻을 지닌 ‘타루(*tāru*)’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르곤 2세(기원전 722-705)의 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6) 안두라루와 타루: 사르곤 2세의 명문

ša uri<sub>2</sub>-ki unug-ki nun-ki ud-murub<sub>4</sub>-ki kul-aba<sub>4</sub><sup>ki</sup> ki-sik<sup>ki</sup> uru, né-med<sup>d</sup>la-gu-da áš-ku-na an-du-ra-ar-šú-un ù dingir-meš-šú-nu šal-lu-ti a-na ma-ha-zi-šú-nu ú-ter-ma sat-tuk-ki-šú-nu ba-aṭ-lu-ú-ti ú-ter áš-ru-uš-šú-un<sup>47</sup>

우르, 우루크, 에리두, 라르사, 쿨라바, 키시크, 네메드-라구다에 관해서 나는 그들(= 그 도시들)의 안두라루(*andurār*)를 시행하였다. 사로잡힌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거룩한 장소에 되돌려 놓았으며(*utēr*), 끊어졌던 그들의 예물을 그들의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utēr*).

46 John S. Bergsma, *윳글*, 165-169.

47 A. Fuchs, *Die Inschriften Sargons II*, 229-230을 Pierre Villard, *윳글*, 109 n. 17에서 재인용.

이렇게 안두라루가 ‘타루’의 D 어간형 1인칭 단수 과거형인 ‘우테르 (utēr)’와 함께 쓰이는 것은 이 시대까지도 ‘두라루’의 기본 의미가 ‘되돌아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וָרָוּקְּ의 의미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예레미야 34장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 나타나는 이 단어의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이사야 61장 1절과 에스겔 46장 17절의 וָרָוּקְּ도 ‘해방’ 보다는 ‘되돌아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וָרָוּקְּ를 선언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원래 상태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는 것을 뜻한다. 에스겔 46장 17절에 나오는 וָרָוּקְּ의 해는 군주가 신하에게 선물로 주었던 땅이 군주에게 되돌아오는 해를 가리킨다. 이 구절에, “그것(= 땅)이 וָרָוּקְּ의 해까지 그(= 신하)의 것이 되었다가 그 군주에게 되돌아갈 것이다(וְשָׁבַח)”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도 וָרָוּקְּ는 כּוֹשֵׁב로 풀이되고 있으며 ‘자유’나 ‘해방’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 이 구절에 나오는 וָרָוּקְּ הַשָּׁנָה(슈낫 핫드로르)를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희년”으로 옮기는 것과 달리 「공동개정」이 “되돌리는 해”로 옮기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예레미야 34장 17절의 וָרָוּקְּ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살피고 본문을 분석하고 다른 구절에 나오는 וָרָוּקְּ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 단어가 아카드어의 차용어라는 점을 바탕으로 아카드어의 안두라루가 사용되는 맥락을 바탕으로 이 단어가 ‘되돌아감’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서 예레미야 34장 17절에 וָרָוּקְּ가 나오는 구문을 분

석함으로써 이 단어 역시 아카드어의 안두라루처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안두라루가 ‘해방’을 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본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이해는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두 번 나오는 **רָחַם**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되돌아감’을 뜻하는 **נָשַׁב**과 **רָחַם**가 함께 나오는 이 절에서 두 번째 사용된 **רָחַם**는 전치사 **בְּ**와 함께 사용되어 자유로운 해방의 상태보다는 특정한 목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되돌아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본문은, **רָחַם**를 시행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시드기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야훼가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시 보내어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예레미야 34장 17절의 해당 구절을 아래의 (7)처럼 옮길 수 있을 것이다.

(7) 예레미야 34장 17절 해당 부분 번역 제안

너희는 사람마다 자기 형제에게,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되돌아감을 선언하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되돌아감을 선언한다. 야훼의 말씀이다. 칼에게로, 전염병에게로, 굶주림에게로.

## 참고 문헌

박동현, 「예레미야 (II)」 (대한기독교서회창립100주년기념주석 23-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윤성덕, “Slave Remission in Jeremiah 34:8-22”, 「서양고대사연구」 34호 (2013년 4월), 79-105.

- 이종근, “히브리 성서의 회년과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롬 제도”, 『구약논단』 1권 1호 (1995년 9월), 75-90.
- 정중호,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과 왕권 강화”, 『구약논단』 18권 2호 (2012년 6월), 178-201.
- Anbar, Moshé, “La libération des esclaves en temps de guerre: Jer 34 et ARM XXVI.363”,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1 (1999), 253-255.
- Bergsma, John S., *The Jubilee from Leviticus to Qumran: A History of Interpretation* (VTSup 115; Leiden/Boston: Brill, 2007).
- Bottéro, J., “Désordre économique et annulation des dettes en Mésopotamie à l' époque paléo-babylonienne”,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 (1961), 113-164.
- Charpin, Dominique, “Les décrets royaux à l'époque paléo-Babylonienne, à propos d'un ouvrage récent”, *Archiv für Orientforschung* 34 (1987), 36-44.
- Charpin, Dominique, “Les édits de ‘restauration’ des rois Babyloniens et leur application”, Claude Nicolet (ed.), *Du pouvoir dans l'Antiquité: mots et réalités* (Geneva: Librairie Droz), 1990, 13-24.
- COS 2 = Hallo, William W., (ed.), *Monumental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Vol. 2 of *The Context of Scripture* (Leiden: Brill, 2003).
- Holladay, William L., *Jeremia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26-52*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89).
- Keown, Gerald L./Scalise, Pamela J./Smothers, Thomas G., *Jeremiah 26-52* (WBC 27; Dallas: Word, 1995).
- Kessler, Martin, “The Law of Manumission in Jer 34”, *Biblische Zeitschrift* 15 (1971), 105-108.
- Lemche, Niels Peter, “*Andurārum* and *Miṣarum*: Comments on the Problem of Social Edicts and Their Applications in the Ancient Near East”,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38 (1979), 11-22.

- Lemche, Niels Peter, “The Manumission of Slaves: The Fallow Year, the Sabbatical Year, the Jubel Year” , *Vetus Testamentum* 26 (1976), 38-59.
- Leuchter, Mark, “The Manumission Laws in Leviticus and Deuteronomy: The Jeremiah Connection” ,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7 (2008), 635-653.
- Lewy, Julius, “The Biblical Institution of *derôr* in the Light of Akkadian Documents” , *Eretz-Israel* 5 (1958), 21\*-31\*.
- Lundbom, Jack R., *Jeremiah 21-3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21B; New York: Doubleday, 2004).
- Milgrom, Jacob, *Leviticus 23-2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3B, New York: Doubleday, 2001).
- Miller, Patrick D., Jr., “Sin and Judgment in Jeremiah 34:17-19” ,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3 (1984), 611-613.
- Sarna, Nahum, “Zedekiah’s Emancipation of Slaves and the Sabbatical Year” , Harry A. Hoffner, Jr. (ed.), *Orient and Occident: Essays Presented to Cyrus H. Gordon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AOAT 22; Kevelaer: Butzon & Berck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3), 143-149.
- Tawil, Hayim ben Yosef, *An Akkadian Lexical Companion for Biblical Hebrew: Etymological-Semantic and Idiomatic Equivalents with Supplement on Biblical Aramaic* (Jersey City, NJ: KTAV, 2009).
- Villard, Pierre, “L’ (*an*)*durāru* à l’ époque néo-Assyrienne” , *Revue d’Assyriologie* 101 (2007), 107-124.

검색어

드로르

안두라루

미샤루

예레미야 34장 17절

시드기야

## The Meaning of *dērôr* in Jeremiah 34:17

Yoo-ki Kim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Hebrew noun *dērôr* in Jeremiah 34:17. It begins by reviewing how ancient and modern translations have rendered the word and examines the context in which it is used. Then it investigates the social context and meaning of *andurāru*, an Akkadian cognate of the Hebrew word, from which it is borrowed. It also analyzes some linguistic and literary features of Jeremiah 34:8-22 to determine the sense of the word in context.

*Dērôr* has generally been understood to mean ‘release’ or ‘liberty’ and translated as such. The word must have been borrowed from Akkadian *andurāru*, probably in the Neo-Assyrian period. D. Charpin proposes that the

www.kci.go.kr

word be understood as ‘return to the original situation’, based on its usage in Akkadian texts as well as the Sumerogram that corresponds to it, ama-ar-gi<sub>4</sub>, ‘return to the mother’.

The event portrayed in Jeremiah 34 reminds us of the Mesopotamian royal edict in that it occurred unexpectedly by the king’s initiative. According to Jeremiah 34:17, since king Zedekiah and Judahites have not obeyed Yahweh by cancelling the *dě̄rô̄r* they pronounced, Yahweh in turn proclaims for them *dě̄rô̄r* to the sword, pestilence, and famine. Both the comparative study and structural analysis suggest that *dě̄rô̄r* should be understood as ‘return to the original situation’ rather than ‘release’ or ‘liberty’. The alternation of *dě̄rô̄r* with the verb *šûb* in Jeremiah 34:8-22 also suggests that the ‘return’ sense of *dě̄rô̄r* best fits in the context. By resorting to both diachronic and synchronic analyses, this study offers a new insight into understanding *dě̄rô̄r* in Jeremiah 34:17, which not only illuminates the meaning of the verse but also better explains the other occurrences of the word in the Old Testament.

## Keywords

*dě'rôr*

*andurāru*

*mīšaru*

Jeremiah 34:17

Zedekiah

- 투고일: 2022년 3월 29일
- 심사일: 2022년 5월 17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5월 25일

[www.kci.go.kr](http://www.kci.go.kr)